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활동사례

조원희 상주 귀농귀촌 정보센터장

상주 일반현황

인구 10만5천명의 전형적인 농업도시

주요 생산품목: 쌀, 꽃감, 사과, 배, 포도, 한우, 육계, 양봉, 오미자, 오이, 수박 등

친환경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최근 중부내륙 고속도로, 상주청원간 고속도로의 개통등으로 교통여건 좋아짐

최근 10년간 657가구 1,876명 귀농귀촌

상주시청 귀농귀촌 특별지원팀운영

전국 귀농 1번지 상주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2. 4. 9
일 발족

목 표 : 귀농.귀촌 3,000호 육성

인 원 : 10명(팀장 김상태 외 9명)

분 야 : 총괄기획, 유치홍보, 기반조성

귀농.귀촌 관련 ONE-STOP 서비스 제공

365일 상담실 운영

귀농.귀촌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 멘토링제 운영

귀농인 빈집 및 농지 D/B 제공

귀농.귀촌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귀농.귀촌 서울사무소 운영

상주귀농귀촌정보센터

▶ 개요

2009년 6월 24일 개소, 외서면 봉강리 상주환경농업학교 내에 위치
귀농 상담, 빈집 소개, 빈집 조사 및향토자원 조사 활동
도시민 유치지원사업 추진

▶ 귀농인 교육 활동

공동체 귀농학교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귀농 새내기, 여성귀농인, 마을리더 양성 교육
집고치기 학교 운영
현장견학 및 워크샵 및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귀농 귀촌인 네트워크 구축활동

귀농인 사랑방 운영
귀농 귀촌소식지 발간
귀농 귀촌동아리 운영 및 문화활동 계획

▶ 귀농귀촌인 재능기부단 및 농촌형 사회적기업 설립 계획

사례1. 토리식품

기업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복원을 꿈꾸는 친환경
농산물 가공회사

2002년 경기도 일산에서 창업하여 2005년 8월 고향인
공검면 동막리로 이전

호박죽, 카레, 케첩, 각종 소스류, 단옥수수 병조림, 우리
밀제품, 토마토식초등을 생산하여 한살림, 아이쿱생협,
두레생협, 여성민우회 생협 등으로 납품

원재료가 되는 호박, 옥수수, 토마토, 팔,우리밀 등을
지역 작목반 및 농가들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년간 500톤 정도)

공장운영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전부 지역주민들을 정
규직으로 고용하고, 여름철 가공량이 많을 경우 20-30
여명 정도의 임시직 고용

사례1.토리식품

지역공동체문화 복원을 위해 인형극단'공갈못'을 조직하고 창작인형극'상주함창 공갈못에' 공연
주부 15명으로 구성된 '공갈못 연밥노래 연구회' 창단 및 발표회

2008년 8월 공갈못 연꽃 문화제 개최

창작인형극2탄 '연밥따는 저 처자야' 제작

공갈못 주변의 흩어진 이야기들을 모아 '이야기 문화지도' 편찬 프로젝트 진행

2011년 8월 재단법인 공갈못 문화재단을 설립

- 토리식품 매출의 1% 기부
- 상주의 동학혁명 발자취등 다양한 문화컨텐츠 조사 연구 활동
- 개인이나 단체의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 상주 내의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들을 묶어 네트워크 구축
- 인문 교양강좌 개설

사례2.상주녹동마을

이안면 문창리에 위치

2010년 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조성하였으며 30가구 입주함(농업6, 공무원8, 기업인3, 자영업 13)

2,875백만원의 자금 투입

귀촌인들과 기존 농민들이 함께 입주하여 마을 구성

농촌진흥청 퇴직 공무원들이 많아 주민들에게 밀착된 영농기술을 지도함

홍로요를 운영하는 도예가 신경애

백련, 산양삼 공동재배, 점심 공동급식 실시 등 주민 공동사업 추진

사례2.상주녹동마을



사례3. 상주승곡마을

상주시 낙동면 승곡리

9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 114호 272명, 농지 157ha

주요 생산품목: 쌀, 한우, 배, 곶감, 사과

귀농귀촌 5가구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농림부)

2006년 팜스테이마을 지정(농협중앙회)

2009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자매결연

2010년 우수체험공간 지정 (농식품부)

2010년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지정 (상주시)

2011년 농촌여성 일자리창출사업장 지정 (여성가족부)

도농교류, 농촌체험, 꾸러미사업, 농민장터 등을 진행하며, 유기농업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마을 지향

사례3. 상주승곡마을

▶ 승곡마을 꾸러미사업

소량 다품종 생산체계가 전업농보다 효율적이며 농가에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

소농들의 협업 생산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저투입, 저비용 농사 가능

윤작, 간작, 혼작, 전작에 기반한 생태적 유기농업가능
제철농사와 전통 먹을거리 복원

품목구성 : 제철에 나오는 채소류, 산나물, 과일류, 유정란 등

농가형 가공 활성화 : 장류, 효소, 떡, 우리밀 빵, 두부, 콩나물, 참기름, 들기름 등

경축순환의 실천 : 유정란 생산, 한우 사육 등

사례3. 상주 승곡마을

▶ 승곡마을에서 귀농귀촌인의 역할

조용권: 오작당 차종손, 문화유산 해설사, 상주귀농귀촌 위원회 위원, 풍양조씨연수원 교무, 고택을 활용한 체험과 민박 사업 진행

이인석, 차영미: 초대 체험마을 사무장, 마을요가교실 강사, 유기농업

정경수, 송혜경, 정다빈, 정예빈 : 현재 체험마을 사무장, 산촌유학, 쇼핑몰, 각종 체험, 마을 아이들의 친구

이석민, 서정희: 마을청년회 총무, 마을 주치의(침, 뜸), 마을 풍물패 상쇠, 유기농업

이숙희 : 체험마을 간사, 꾸러미 사업 실무 및 떡과 반찬가공 담당, 떡만들기 체험 담당

사례3. 상주 승곡마을



사례3. 상주 승곡마을



사례4. 외서면 작은 도서관

귀농 8년차인 이용선(건축) 백승희(설계사) 부부가 중심이 되고, 인터넷 개발과 인생설계 상담 전문가(조혜순), 목조주택 건축과 인테리어를 하다가 2년 전 귀촌한 (피선희, 김영신) 부부 등 5가구의 귀농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하는 지역 도서관 외서면 소재지에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건물을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리모델링

지역 아이들에 대한 방과후 교육 및 책읽기 지도
요가교실, 영화 상영, 풍물, 노래교실 등 학생, 학부모, 귀농인들이 어우러져 즐겁게 일하고 놀이하는
농촌지역사회 활동

2012년 6월20일 개관예정

사례4. 외서면 작은 도서관



사례5. 여성농민 목요장터

상주시여성농민회 주관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상주문화
회관 앞에서 진행

지역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채
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하여 반
찬류, 두부와 참기름들 가공품,
장류, 각종 효소등을 판매

2012년4월부터 로컬푸드운동
의 일환으로시작

장터의 실무책임을 두명의
여성귀농인이 담당

아나바다 장터, 수공예품, 문화
예술공연등과 연계하여 확대해
나갈 예정



사례6.농촌지역 작은학교 살리기운동

2004년 농촌지역 공동화로 폐교위기에 놓인 상주 남부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을 시작함

교사와 학부모들이 상주시내와 대도시에서 이주해 오고, 교내에서 체험학습과 다양한 방과후 활동을 통해 좋은 학교로 거듭남

학생수가 23명에서 107명으로 증가

2008년 중학교 과정(내서중학교)에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 시작 (학생수 16명에서 48명으로 확대)

2009년 백원초등학교로 확대 (학생수 18명에서 70명)

대안학교가 아닌 공교육을 농촌상황에 맞게 특화함으로써 외지에서 상주로 귀농,귀촌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

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안

단순한 인구늘이기 차원의 정책접근이 아닌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필요 (소득,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 삶의 질 등)

농촌일자리와 연계한 정주공간 개발

- 20가구 이상의 전원마을이나 대규모로 진행되는 농어촌 뉴타운도 좋지만 오히려 농촌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연계한 소규모 정주공간(5가구 내외) 개발이 필요함
- 지역별로 주제를 가진 문화컨텐츠와 연계한 정주공간 개발
- 토지분양상의 혜택이나 소득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현금지원 보다는 시스템과 교육, 기반 시설 마련에 투자

감사합니다.